맞이하기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이사야서 강해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의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 이사야가 본 계시

이사야가 아모츠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성경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왕들 가까이에서, 네 명 이상의 왕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긴 기간 활동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활동한 만큼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범위도 멸망직전의 유다를 넘어 포로기를 지나 포로 이후, 그리고 영원한 종말에까지 이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소개됩니다(1:1). 2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2:1). 이처럼 이사야에서 '계시'나 '말씀'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표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선지자의 시각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자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몰락해 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인 분석이나 정치적인 평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정확한 시각, 곧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시작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패역을 고발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낱 미물들도 주인이 베푸는 은덕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은 '범죄', '허물', '행악', '부패'라는 4중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녀로서 귀히 여기고 양육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 그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위 열강들을 들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셔도 그들은 완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는 길 대신 열강들을 의지하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여망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포기 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이 이사야가 본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요1:14). 회복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려서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원리로 결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